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작성일 : 2011년 12월 13(화) 오후 3:00~

작성자 : 주정신

이날은 감람산에 갈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일이 있어서 그냥 말쑼 보면서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수록 더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과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람산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자마자 무릎을 꿇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오직 선생님 생각만 났습니다.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가슴이 찡했습니다. 주님께 “주님 선생님을 지켜 주세요. 함께해주세요.”하며 선생님의 영 혼 육 마음 정신 생각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며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작은 자의 기도지만 들어주세요. 부족한 자의 기도예 귀를 기울여 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요.”하며 기도하니, 주님께서 제 앞에 오셔서 저를 뻔히 쳐다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시며 저를 꼭 끌어안고 제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주님의 눈물을 닦아 드렸습니다.

* 예수님 말씀 *

울지를 말아라. 눈물을 닦아라.
내 사랑하는 이여.
흐느끼는 소리에 나도 같이 흐느껴 울게 되는구나.
눈물을 닦고 나의 말을 적어라.
애타우는 그 심정의 그릇은 눈물이 가득 차 넘치는구나.
사랑의 그 기다림은 이미 녹아져 내려 기운이 없구나.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똑같구나.
그래서 그 소리가 내 마음에 꽂혔도다.
그 눈물이 내 마음을 울렸노라.
너의 기도가 작다 하지 말거라.
작은 기도가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세상 천하를 통틀어
가장 큰 기도를 한 것이다.
심정의 기도는 큰 기도다.
하늘의 마음까지 동요케 만드는 기도는
누가 뭐래도 작은 기도가 아니란다.
네가 눈물로 하는 기도는 헛되지가 않은 것이니라.
기도는 하늘 앞에 상달되기에

나는 그 기도를 잊지 않고 다 들어준다.
상황과 때를 보고 이치에 맞게 합당하게
내가 너의 기도를 빠짐없이 다 들어주리라.
그러니 너는 기도하여라.

더 힘을 내어 선생을 위해 기도하고
더 애타우며 선생을 위해 기도하여라.
나도 그를 위해 기도하니 너도 나도 기도하자.

(예수님 제가 선생님을 위해 해 드릴 것이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 저는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이 부족한 이의 기도가 선생님께 힘이 될까 생각하기도 해요. 제가 선생님을 위해 해 드릴 것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 저는 속상해서 눈물이 나요.)

사랑하는 자야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그런데 어린 자의 기도가 선생을 살리고
부족한 자의 기도가 선생에게 큰 힘이 된다면
너는 나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 정말로 어린 저의 기도가 선생님께 큰 힘이 될 수 있나요?)

너는 작다 하나 작은 것이 아니다.
사랑의 기도는 이 세계의 어떤 것보다도
큰 힘과 능력을 지녔으니
기도는 불가능도 가능케 만드느니라.
너는 너의 기도가 부족하다 하나
이미 너의 기도로 내가 선생을 도와 준 것이,
힘을 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말을 하느냐.
기도는 위대하다.
하늘 앞에 상달되는 기도로
영적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라.
육으로 보기에는 변화가 없는 거 같으냐?
영적 판도가 바뀌고 상황이 이미 틀어지고
기도가 좌우되기도 한다.
영적 상황의 변화로 육적 상황의 변화가
때에 맞게 이치에 맞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얼마나 기적과도 같은 능력이나.
그러니 부족하다 하지 말고 너는 믿고 기도하라.
너의 기도 한마디로 그의 운명이 달라진다.
사랑의 기도 능력이 그에게 임해
힘을 받고 영적 기쁨을 누리며
그 가운데 그가 능치 못할 것이 없으니 기도하여라.
진실로 마음 다해 기도하여라.

(예수님. 아멘! 그렇기에 저는 매일‘나는 기도의 사명자다! 나의 기도로 섭리의 운명 선생님의 운명이 달라진다.’ 생각하며 기도해요! 저는 기도의 사명자라 생각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 할게요!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신다니 정말 감사해요.)

그래. 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섭리의 모든 자들이 기도하라 하여라.
기도의 사명자가 되어 기도하라 하여라.
지금 이때는 모두가 뒤집어져야 한다.
기도함으로 깨어나야 할 때이다.
기도는 자신을 돌아보게 하며
기도는 마음을 일으키며
기도는 깨닫게 한다.
그러니 지금은 모두가 기도함으로
죽어 있는 것을 살리고
재림의 때를 고대하며 만들 때이다.
그리고 시대가 악해지는 가운데
이 역사를 위해 기도할 때다.
이 시대 중심자인 선생을 통해서만이
내가 온전히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니
사탄이 그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여라.
선생이 힘을 내어 끝까지 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이다.
지금 저 바깥 세상에 있는 자들은
이 시대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이리를 쫓으며 주인인 목자라 착각하고 따라가고 있다.
섭리사에 있는 자들은
기도함으로 무장하고 기도함으로 외쳐야 될 때이다.
기도해야 마음에 역사의 확신! 담대함! 용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지금 이때에 내가 쓰고 있는 역사의 주인인
선생을 위해 기도하자.
성경을 보아도 기도함으로 역사의 판도가 달라졌으니
너희는 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하여라!
여호수아가 기도함으로 아모리 족속을 무찔렀듯이
기도하여 흑암을 무찌르고!
엘리아의 사생결단 기도로 우상을 멸했듯이 기도하라!
유대인들의 간절한 기도의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4천 년 만에
이스라엘 땅에 나 예수를 보내셨듯이
기도는 하늘 앞에 상달되니 기도하여라.
기도가 큰 위력을 보여 줄 것이니
기도하는 자마다 깨닫게 될 것이니라.
너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는 더 온전하게 되리라.